

대중음악 장르별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여성 관능미에 관한 연구

서 은 희* · 최 정 옥⁺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패션아트전공 석사과정*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전공 조교수⁺

A Study on Voluptuous Beauty of Females Found in Music Videos by Popular Music Genre

Eun-Hee Seo* · Jeong-Wook Choi⁺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Art,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extile & Clothing Design, Kyung Hee University⁺

(투고일: 2008. 12. 19, 심사(수정)일: 2008. 1. 9, 게재확정일: 2009. 2. 1)

ABSTRACT

This study aims on providing a design technique that expresses aesthetical elements by arranging the analysis of sensual beauty into detailed elements of design from music video outfits by genre of pop music, by observing music videos of female vocalists chosen from each genre of pop music focusing on their fash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1. In the genre rock, the sensual beauty of female were expressed with a boyish and neutral style using texture such as leather or denim, and such style had the effect of emphasizing their feminine side even more. 2. In the genre dance music, exposure is extensive compared to other genre using sexy or lingerie look, and I found an ambivalent style of feminism with clothes in the form of drapery using textures such as chiffon and silk, and femme fatale style with textures adhering to the body such as leggings, leotard, and bodysuit. 3. In the genre of rap and hip-hop, clothes from casual and costume-play style were found using training jersey, t-shirt, and denim pants, and emphasized the sensual beauty of women by showing a silhouette with short length and fitting style using shiny textures. 4. In the genre of R&B, there were diverse outfits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appearing in the stories, or the situation of the story since there are many dramatic representation in the form of story. Especially in case of female characters, the feminine side was emphasized staging a feminine style by wearing dresses with the texture of chiffon and silk. Exposure was restrained compared to other genre.

Key words: sensual beauty(관능미), music video fashion(뮤직비디오 의상), rock(락),
dance music(댄스뮤직), rap·hip-hop(랩·힙합), R&B(알앤비)

I. 서론

대중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문화로 일찍이 보급된 라디오, TV, 오디오, 비디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밀착되었고, 지금은 케이블 TV를 비롯한 방송매체의 확장으로 미디어를 통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중음악과 영상이 결합하여 탄생한 뮤직비디오는 1981년 8월1일 미국 MTV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 이후 뮤직비디오는 방송기술의 발달, 뮤직비디오의 매체적인 특성과 다양한 사회적 여건을 배경으로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또한 뮤직비디오는 일상적인 문화형식이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나 쇼핑센터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경 영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문화상품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의 많은 부분인 소비행위와 관련되는 복합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즉, 시청자들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가수의 의복과 장신구, 그들이 마시는 음료수 등 그들의 취미용품까지 소비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습상, 도덕상 받아들여지지 않던 의복도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스타가 착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일반적인 패션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뮤직비디오 스타의 개성을 표현하는 코디네이트 방식이 그와 동일시되려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까지 모방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코디네이트 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한편, 복식에 나타난 성적 표현의 변화와 성문화의 개방으로 인해 성적 이미지가 가시화됨에 따라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의상이 인체 노출과 함께 노출적인 표현을 보여줌으로서 성의 상품화 현상을 가져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인체의 노출이 성의 상품화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자신감과 성적 건강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¹⁾ 현대 패션에서 신체 곡선의 강조와 노출이 많은 디자인을 유행시킴으로써 성적 매력이 강조된 신체가 이상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가 항상 변화하고 그에 따른 문화적 양상 또한 변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산물에서 나타나

는 성적 표현이 변화되고 있다. 김훈순²⁾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에서 최근에 재현되는 여성들은 성적매력을 무기로 남성을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팝드프탈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권기영³⁾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에 반발하며 남녀성이 혼재된 이원적이고 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선행된 뮤직비디오 분야 연구는 정이주⁴⁾, 도희⁵⁾, 최민성⁶⁾ 등의 뮤직비디오 이미지에 관한 연구와 김영식·권중문·지현호⁷⁾, 서정옥⁸⁾ 등의 영상적 특성에 관련된 논문, 뮤직비디오 의상에 관련된 논문은 고지형⁹⁾, 류경민¹⁰⁾, 정하나·최현숙¹¹⁾, 권기영³⁾ 등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음악장르를 구분하고, 미학적 측면에서 이 장르별 패션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음악장르에 따라 뮤직비디오 의상에서 관능미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즉 대중음악 장르별로 선정된 여가가수 뮤직비디오의 패션을 중심으로 관능미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 장르별 뮤직비디오 의상에 표현된 관능미를 세부적 디자인 요소로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미학적 요소를 표현하는 디자인 기법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 목적이 있다.

II. 대중음악 장르별 음악적 특성

1. 락

락(Rock) 음악 스타일은 백인의 컨트리 앤 웨스턴(Country And Western)음악과 흑인의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의 음악이 결합된 잡종 음악으로, 락앤롤(Rock And Roll)이란 형식을 갖춘 음악의 최초의 히트곡은 빌리할리(Bill Haley)의 영화 폭력교실에 삽입된 Rock Around Clock이었다. 이후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lesley), 척 베리(Chuck Berry),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 등의 락 스타들이 줄이어 나오면서 락 음악의 시대가 시작된다¹²⁾.

60년대 밥 딜런(Bob Dylan)을 위시한 포크 락(Folk Rock), 히피(Hippie) 문화와 플라워 무브먼트

(Flower movement)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레이트 풀 데드(Grateful Dead), 제퍼슨 에어플레인(Jefferson Airplain), 도어즈(Doors)등의 싸이키델릭 락(Psychedelic Rock)등의 등장으로 락 음악이 점점 저항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 당시에는 음악적 형식보다 메시지에 좀 더 중점을 두는데 포크 락은 단출한 악기편성에 저항적인 가사로 그 메시지를 표현했고 싸이키델릭은 당시 히피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환각제의 몽환적인 효과를 연주함으로써 당시 히피문화의 정신적 해방을 표현했다. 70년대에는 킹 크림슨(King Crimson), 예스(Yes),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 제너시스(Genesis)등의 프로그레시브 락(Progressive Rock),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딥 퍼플(Deep Purple),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등의 하드 락(Hard Rock)음악의 등장으로 좀 더 다양하고 화려한 표현방식의 예술적인 성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70년대에 예술적인 락 음악에 반기를 든 펑크 락(Punk Rock)도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그다지 긴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80년대 초반 급격히 사그러들지만 90년대 얼터너티브(alternative), 펑크 리바이벌 붐이 일면서 다시 한 번 재조명되기도 했다. 한편 70년대 후반부터 하드 락 사운드는 점점 발전하여 블루 오이스터 컬트(Blue Oystercult)에 의해 헤비메탈(Heavy Metal)이란 명칭을 갖추게 되고 주디스 프리스트(Judas Priest),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 데프 레퍼드(Def Leppard) 등의 NWOBHM(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밴드들에 의해 80년대 헤비메탈의 시작을 열게 되었다. 이후 80년대에는 여러 명칭의 헤비메탈 밴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밴드들로는 본 조비(Bon Jovi), 머틀리 크루(Motley Crue), 메탈리카(Metallica), 메가데스(Megadeth), 건센 로지스(Gun's And Roses), 콰이어트 리옷(Quiet Riot), 슬레이어(Slayer)등이 있다. 이후 마초적이고 보수적인 헤비메탈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은 90년대 이르러 염세적이고 개인적인 얼터너티브 락에 환호했고 너바나(Nirvana), 펄 잼(Pearl Jam),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pkins)등의 밴드들이 90년대 얼터너티브 씬(scene)을 풍미하였다.

2. 댄스뮤직

댄스뮤직(Dance Music)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으로, 대중음악 장르에 맞춰 춤출 수 있기 때문에 댄스 음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범위의 스타일과 장르의 음악이 포함되는 메타 장르로 간주될 수 있다. 댄스 밴드와 댄스 음악은 1910년경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된 관용어로서, 댄스 밴드 중 '빅 밴드(Big Bands)'는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많은 호텔과 클럽의 명물이었다. 1970년대는 디스코로 인해 댄스 클럽이 새 음반을 대중화시키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디스코 음반은 유럽과 북미의 판매 차트 정상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현대의 댄스 음악과 실질적으로 동의어처럼 되어버린 1980년대 테크노는 많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변형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글(Jungle), 하우스(House), 트립합(Trip-Hop), 드럼 앤 베이스(Drum and Base)를 들 수 있다. 넓게 보아 이들 스타일은 최첨단 테크놀로지 사용, 광범한 샘플 사용, 음악적 절충주의, 그리고 댄스 씬 혹은 클럽 씬과의 연관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음악 출판물의 리뷰나 기사, 그리고 마케팅 과대광고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음악 형식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 그 경계가 가변적이고 불명확하다. 그리고 하위 장르는 계속 분열되는 중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MTV와 활력 넘치는 뮤직비디오에 힘입어 댄스 팝이 사랑을 받았다. 광범위하게 구성된 음악 장르인 댄스 팝은 종종 상업적인 지향 때문에 그리고 10대 소녀를 주요 청중으로 삼는다는 점 때문에 비판받았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대표자로는 카일리미노그(Kylie Minogue), 폴라애플(Paula Abdul), 바나나라마(Bananarama), 그리고 스파이스 걸스(Spice Girls)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스타일의 댄스와 그 장소, 입지는 특정한 댄스음악 스타일과 연관된다. 특히, 1990년대 '댄스'는 댄스 클럽 씬 및 다양한 댄스-음악 스타일과 관련된다. 이 메타 장르는 상당한 판매량과 독자적인 차트를 통해 영국 음악 씬에서 두드러진 부분이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뚜렷한데, 미국에서 일렉트로니카(electonica)는 프로디지(Prodigy)

와 케미컬 브라더스(Chemical Brothers)의 상업적 성공에 힘입어 현재 유행하는 댄스-음악이다. 영국과 유럽에서 댄스는 음악 산업에 의해 고도로 분화된 록, 팝 시장의 판매고 격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택되어, 주류 대중음악의 일부가 된다. 현대 음악 시장은 변덕스럽고 불명확하지만, 미국에서 댄스는 주요 상업적 세력으로서 그런지 보다 두각(頭角)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아시아에서도 댄스는 대단히 대중적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도 주류를 침식하고 있다¹²⁾.

3. 랩, 힙합

랩(Rap)은 원래 1970년대 말 뉴욕 외곽 지역의 흑인과 히스패닉 틴에이지 사이에서 시작된 음악장르이며, 힙합(Hip Hop)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의 음악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래퍼들은 많은 음악적 원천으로부터 빌려 와 자신의 믹스를 만들고, 음악을 반주삼아 즉흥적인 거리의 시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엠시 해머(M.C. Hammer), 크리스 크로스(Kris Kross), 바닐라 아이스(Vanilla Ice), 퍼프대디(Puff Daddy), 워렌지(Warren G) 등 좀 더 부드러운 상업적 래퍼들을 통해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상품화 되었다.

힙합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도심의 흑인과 라틴 청년들의 사교, 유행, 음악, 그리고 댄스 하위문화를 포괄하며 랩과 브레이크 댄싱, 그래피티 아트, DJ 음악클럽, 그리고 스포츠 용품들을 포함한다. 힙합음악은 대표적인 흑인음악인 비밥이나 스윙 혹은 쿨 등의 재즈음악과 무관하지 않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를 풍미했던 디스코에서도 힙합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힙합의 강세는 다른 장르에까지 확대되어 많은 가수들이 힙합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¹²⁾.

4. 알앤비

초기 형태의 알앤비(R&B)는 로큰롤의 가장 중요한 전조 가운데 하나이며, 블루스와 소울 간의 중요한 가교였다. 초기 알앤비 아티스트는 미국 빅 밴드

와 스윙 재즈 시대에 나타나, 새로 나온 베이스 기타 같은 전기 악기를 사용하고 보컬을 강조한 시끄러운 댄스 음악을 연주했다. 1950년대 초, 산업에서 '레이스(race)' 음악이라고 불리다가 빌보드지에 의해 알앤비로 개명되었다.¹³⁾ 알앤비는 자체 차트와 흑인 라디오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으나, 백인 라디오에서는 거의 방송되지 않았다. 실제로 알앤비 음악은 노골적인 성적내용으로 인해 종종 금지되었다. 알앤비는 로큰롤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일부는 알앤비가 바로 로큰롤이었으며 백인 뮤지션과 음반 회사에 의해 백인 수용자를 위해 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알앤비의 요소는 1960년대의 브리티쉬 알앤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록으로, 이후에는 디스코, 랩으로 융합되었다. 실제로 알앤비의 존재 범위는 너무 넓어서, 이 용어는 때로 흑인 음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대중음악의 장르별 여자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패션을 중심으로 여성의 관능미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장르별 관능미를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1. 연구대상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미국 빌보드차트 10위안에 든 음악 중에서 장기간 동안 1위에 선정된 곡을 우선으로 선곡하였고 조혜연¹¹⁾의 논문을 참고하여 락, 댄스, 랩·힙합, 알앤비 4개의 장르를 선정하고 여가수와 여가수가 속해있는 그룹을 중심으로 장르별 5곡의 음악을 선정, 총 20개의 음악을 분석하였다. 한 가수가 여러 장르에 중복되어 선정되는 경우, 순위가 높은 장르의 곡을 선정하여 1인 1곡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기간

2007년 2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1〉 연구 대상 및 범위

장르	선정 비디오	
	가수	곡
락	Avril Larvine	Complicated(2002)
	Ashlee Simpson	Just Like a PillShadow(2004)
	Evanescence	Call Me When You're Sober(2006)
	Kelly Clarkson	Walk Away(2005)
	Pink	Just Like a Pill(2002)
댄스	Beyonce	Crazy in Love(2003)
	Britney Spears	Toxic(2003)
	Jenifer Lopez	Play(2003)
	Madonna	Sorry(2005)
	Christina Aguilera, Mya, Lil Kim & Pink	Lady Marmalade(2001)
랩, 힙합	Ciara	Goodies(2005)
	Mary j Blige	Love At 1st(2003)
	Fergie	London Bridge(2006)
	Gwen Stefani	Wind It Up(2006)
	Missy Eliot	We Run This(2006)
알앤비	Alicia Keys	Unbreakable(2005)
	Ashanti	Ashanti(2002)
	Mariah Carey	We Belong Together(2005)
	Monica	U should've know better(2003)
	Jessica Simpson	Angels(2005)

3. 연구방법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5회씩 반복 시청하고 프린트 스크린을 통해 스톱모션을 하여 자료를 정리 보 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밀한 검토를 하였다.

4. 연구내용

정리된 자료를 통해 색상, 소재, 스타일, 아이템, 헤어, 메이크업 등 세부적인 디자인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여 세밀히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

1) 락

일반적인 락의 패션은 데님, 가죽 등의 소재와 데

님팬츠, 가죽자켓 등의 아이템, 징이 박힌 메탈, 가죽 끈 등의 악세사리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긴머리와 독특한 머리염색의 헤어스타일이 특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이브릴 라빈(Avril Larvine)의 “Complicated”, 애슐리 심슨(Ashlee Simpson)의 “Shadow”, 에반에센스(Evanescence) “Call Me When You're Sober”, 켈리 클락슨(Kelly Clarkson)의 “Walk Away”, 핑크(Pink)의 “Just Like a Pill”등 여자가수 락 뮤직비디오 의상을 분석하였다. 에이브릴 라빈은 뮤직비디오 “Complicated”에서 블랙 슬리브리스 면 티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징이 박힌 가죽 팔찌와 빅 사이즈의 은반지를 여러 개 레이어드하여 톰보이(Tomboy)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에서도 넥타이를 착용하고 팔뚝까지 오는 스트라이프 토시와 아대를 악세사리로 활용하여 보이쉬한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긴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과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중성적이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¹⁵⁾. 애슐리 심슨은 “Shadow”에서 의상은 모두 블랙으로 케미컬 탑에 오프숄더 프린트 티셔츠를 레이어드 하

〈표 2〉 락 장르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

Title	스타일	색상	소재	아이템	악세사리	헤어,메이크업
에이브릴 라빈 "Complicated"	보이쉬	white,black	면	칠부팬츠, 슬리브리스먼티셔츠, 넥타이	징박힌 가죽팔찌, 아대, 토시,메탈 소재 악세사리	스모키 메이크업,스트레이트 롱 헤어
에슐리 심슨 "Shadow"	섹시	black,blue	면, 데님	케미술, 오프숄더 프린트 티셔츠, 데님 팬츠, 와이드 팬츠	징박힌 벨트, 뱅글, 가죽끈,길게 늘어지는 귀걸이	롱 웨이브, 블랙 염색머리,스모키 메이크업, 블랙 매니큐어
에반에센스 "Call Me When You're Sober"	섹시	black, red	가죽 레이스	블랙 슬리브리스 드레스, 퍼프 소매 체크 드레스, 케이프	가죽장갑,비즈 목걸이, 레이스업 부츠	스모키 아이, 레드 립,블랙 매니큐어, 웨이브진 롱 헤어
켈리 클락슨 "Walk Away"	밀리터리	khaki	데님	니커보커즈, 더블버튼 자켓	레이스업 부츠, 가죽장갑, 십자가 목걸이, 메탈 소재 악세사리	스모키 메이크업, 펑키한 헤어 스타일
핑크 "Just Like a Pill"	펑키	black	가죽스 판택스	기모노 드레스, 가죽 미니 스커트, 망사 브라탑, 블루종	초커, 가죽장갑, 플랫폼 슈즈, 채찍	스모키 메이크업, 문신, 블랙 매니큐어, 층진 단발머리, 와인색 부분 염색

고 팔부 길이의 와이드 팬츠를 착용하여 케주얼 하면서도 섹시한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며 뱅글과 가죽 팔찌, 반지등의 악세사리를 여러개 레이어드하고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로 코디네이트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블랙 염색머리에 긴 웨이브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블랙 매니큐어(manicure)와 스모키(smoky) 아이 메이크업으로 강렬하면서 섹시한 이미지를 더해 주었다(그림 2)¹⁶⁾. 에반에센스의 뮤직비디오 "Call Me When You're Sober"는 여가수가 뱀파이어 같은 느낌의 모습을 연출하며 의상, 악세사리, 메이크업에서 전체적으로 레드(Red)를 기본 색상으로 하였다. 의상은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가죽 소재의 긴 장갑이나 롱 부츠를 매치하여 언밸런스(unbalance)하면서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헤어, 메이크업에서도 여성스러운 롱 웨이브 스타일에 빨간 입술과 짙은 아이라인으로 언밸런스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그림 3)¹⁷⁾. 켈리 클락슨의 뮤직비디오 "Walk Away"는 밀리터리룩(military look)을 섹시하게 연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길이가 매우 짧은 카키색 더블버튼 자켓에 밀위 길이가 짧은 니커보커즈를 매치하여 배 부분을 노출 하였으며 십자가 목걸이, 배꼽에 피어싱, 양쪽이 다른 이어링 등 메탈

소재의 다양한 악세사리를 레이어드하였다. 헤어 스타일은 펑키한 느낌을 단정하게 연출하고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강렬한 모습을 연출하였다(그림 4)¹⁸⁾. 핑크의 뮤직비디오 "Just Like a Pill"은 전체적으로 음울하고 그로테스크(grotesque)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의상도 모두 블랙(black)으로 전체적으로 심한 노출을 보여주고 있다. 기모노 의상을 변형한 드레스는 소매부분을 크게 과장하고 길이를 짧게 하여 가슴과 다리를 거의 다 노출하였다. 또한 망사 브라탑과 가죽 미니 스커트등의 아이템으로 노출 패션을 보여주며 일본의 게다를 변형한 웨지힐과 문신, 채찍, 가죽장갑 등의 악세사리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더하였다. 헤어 스타일은 층이 많이 진 단발머리에 와인색으로 부분 염색을 하고 블랙 매니큐어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여 음울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그림 5)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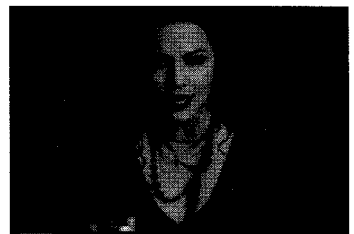
락의 뮤직비디오 의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색상은 블랙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소재는 가죽과 데님을, 악세사리는 메탈소재, 징이 박힌 가죽, 체인 등을 이용하여 여러겹 레이어드 하는 스타일링을 보여주었다. 헤어 스타일은 블랙 염색을, 메이크업은 스모키 아이와 블랙 매니큐어로 강한 모습을 연출하였



〈그림 1〉 에이브릴 라빈,
"Complicated(2002)"



〈그림 2〉 애슐리 심슨,
"Shadow(2004)"



〈그림 3〉 에반에센스,
"Call Me When You're Sober(2006)"



〈그림 4〉 켈리 클락슨,
"Walk Away(2005)"



〈그림 5〉 핑크,
"Just Like a Pill(2002)"



〈그림 6〉 핑크
"Just Like a Pill" 2

다. 가슴, 배, 등 부위를 많이 노출하여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락 장르에서는 여성의 관능미를 가죽, 데님 등의 소재와 보이쉬하고 중성적인 스타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더욱더 여성스러운 면을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락의 의상 분석은 〈표 2〉와 같다.

2) 댄스뮤직

일반적인 댄스뮤직의 의상은 흰색, 레드, 블루 등 밝고 원색적이었다. 노출이 많은 탱크탑, 밑위 길이가 짧은 힙본팬츠, 스트랩리스 드레스 등의 아이템으로 섹시한 의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스타일에 있어서는 트레이닝룩, 페미닌룩, 레이어드룩 등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헤어 스타일은 숏컷, 스트레이트, 염색머리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메이크업은 강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욘세(Beyonce)의 "Crazy in Love",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의 "Toxic", 제니퍼 로페즈(Jenifer Lopez)의 "Play", 마돈나(Madonna)의 "Sorry",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

릴킴(Lil Kim), 마야(Mya), 핑크(Pink)의 "Lady Marmalade" 등 여자가수의 뮤직비디오 의상을 분석하였다. 비욘세는 "Crazy in Love"에서 흰색 홀터넥 탑에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숏팬츠에 레드 힐을 신고 등장한다. 많은 조명기구 사이로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기모노를 변형한 녹색 미니 드레스에 뱅헤어 스타일을 보여준다(그림 7)²⁰⁾. 대형 환풍기 앞에서 댄서들과 섹시한 군무를 추는 장면에서는 주황색과 레드가 혼합된 화려한 색상의 쉬폰소재 미니 드레스를 착용하여 의상이 바람에 날리는 연출로 섹시함을 더하였다(그림 8)²⁰⁾. 남자 랩퍼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지브라 바디수트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빅 사이즈의 골드 이어링을 하고 퍼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Play"에서 제니퍼 로페즈는 두가지 스타일의 의상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지톤의 홀터넥 탑에 숏팬츠와 롱부츠를 착용하고 헤어 스타일은 단정하고 깔끔한 올백(all back)의 형태를 보여준 스타일(그림 9)²²⁾과 가슴 바로 아래쪽은 블랙 가죽 소재의 코르셋 형태이고 허리 아래로부터 랩라인까지 절개된 흰색 홀터넥 쉬폰 드레스에 핑거리스글로브

〈표 4〉 댄스뮤직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

Title	스타일	색상	소재	아이템	악세사리	헤어, 메이크업
비욘세 "Crazy In Love"	섹시	green, orange, red	쉬폰, 저지	홀터넥탑, 숏팬츠, 미니 드레스, 바디수트, 퍼	골드 악세사리, 빅 사이즈 이어링	뱅헤어, 웨이브진 긴 머리, 아이메이크업 강조
브리트니 스피어스 "Toxic"	섹시	black, red, blue	가죽, 스판덱스	가죽팬츠, 브라탑, 바디수트	가죽장갑, 선글라스, 스틸레토힐 부츠	염색머리, 스트레이트 롱 헤어, 두꺼운블랙 아이라인, 레드립
제니퍼 로페즈 "Play"	섹시	beige, black	쉬폰, 가죽, 저지	홀터넥 탑, 숏팬츠	골드 악세사리, 펑거리스글로브	과장되게 부풀린 퍼머넌트, 올백, 브라운톤의 메이크업
마돈나 "Sorry"	섹시	silver, purple	스판덱스	레오타드, 블루중, 코르셋	두꺼운벨트, 인조 보석	필메이크업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킵, 마야, 핑크 "Lady Marmalade"	섹시	red, pink, black	레이스, 망사	브라, 팬티, 코르셋, 가터벨트	새틴장갑, 지팡이, 중절모, 인조보석	퇴폐적, 진한 메이크업, 컬러풀한 가발

를 착용한 모습의 또 다른 스타일은 과장하여 부풀린 퍼머넌트의 헤어 스타일을 하였다(그림 10)²²⁾.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Toxic"에서 팜프파탈의 모습을 보여준다. 블랙의 브라탑과 몸에 꼭 끼는 가죽 팬츠, 스틸레토힐 부츠,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메이크업은 블랙 아이라인을 두껍게 하고 레드로 입술을 강조하여 진하고 과장되게 표현하였으며 헤어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레드로 염색하였다(그림 11)²¹⁾. 또 다른 장면에서는 누드에 다이아몬드로 몸을 감싼듯한 시스루 스타일을 보여주었다.(그림 12)²¹⁾. "Sorry"에서 마돈나는 보라색 레오타드에 코르셋을 착용하고 인조 보석 귀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모습이다(그림 13)²³⁾.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이 의상에 짧은 길이의 은색 블루중과 롱 부츠, 두꺼운 벨트를 매치한 모습이다. 디스코 풍의 음악과 함께 복고적인 패션을 보여주었다.(그림 14)²³⁾. "Lady Marmalade"에서는 브라, 팬티, 망사 스타킹으로만 이루어진 퇴폐적인 란제리룩을 보여주고 있다. 핑크, 레드, 블랙 등의 색상의 레이스가 달린 브라, 팬티, 콜셋, 뷔스티에, 가터벨트를 착용하고 화려한 인조보석 악세사리를 레이어드하고 긴 새틴장갑, 중절모, 지팡이 등의 소품을 매치하였다. 헤어 스타일은 컬러풀한 가발을 착용하고 깃털 장식을 하였으며 메이크

업은 눈과 입술을 모두 강조한 퇴폐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그림 15,16)²⁴⁾.

댄스뮤직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색상은 블랙, 화이트, 레드, 오렌지, 보라 등 밝고 원색적인 화려한 색상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스타일은 섹시, 란제리 룩 등의 스타일을 연출하고 악세사리는 크고 길게 늘어지는 스타일의 이어링과 인조보석의 목걸이, 팔찌 등으로 화려하게 연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가발을 이용하였으며 메이크업은 진하게 표현되었다. 레깅스, 레오타드, 바디수트 등의 밀착된 형태와 코르셋, 브라, 가터벨트 등 속옷을 착용하여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댄스뮤직에서는 섹시룩이나 란제리룩 등의 스타일로 다른 장르에 비하여 노출 부위가 컸으며 레깅스, 레오타드, 바디수트 등의 밀착된 형태로 팜프파탈 스타일과 쉬폰, 실크 등의 소재를 사용한 드레이퍼리 형태의 의상으로 페미닌한 모습의 양면적인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댄스뮤직의 뮤직비디오 의상분석은 〈표 3〉과 같다.

3) 랩, 힙합

랩, 힙합의 패션은 스포츠웨어, 헐렁한 티셔츠, 빅 사이즈의 팬츠 등의 아이템으로 자유롭고 활동적인 스타일이 특징이었다. 야구모자, 아대 등의 스포티한



〈그림 7〉 비욘세,
"Crazy In Love(2003)" 1



〈그림 8〉 비욘세,
"Crazy In Love(200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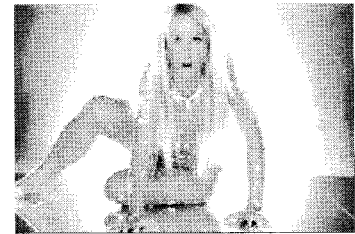
〈그림 9〉 제니퍼 로페즈,
"Play(200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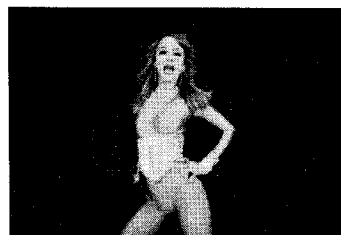
〈그림 10〉 제니퍼 로페즈,
"Play(2003)" 2



〈그림 11〉 브리트니 스피어스,
"Toxic(2003)" 1



〈그림 12〉 브리트니 스피어스,
"Toxic(200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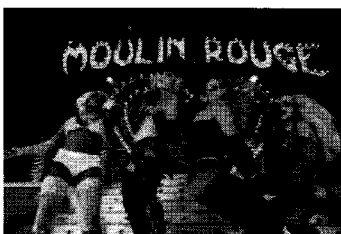
〈그림 13〉 마돈나, "Sorry(2005)" 1



〈그림 14〉 마돈나, "Sorry(2005)" 2



〈그림 15〉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킴, 마야, 핑크, "Lady
Marmalade(2001)" 1



〈그림 16〉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킴,
마야, 핑크, "Lady Marmalade(2001)" 2

소품과 크고 무거운 메탈 악세사리를 주로 착용하였다.
랩, 힙합의 뮤직비디오 의상은 시아라(Ciara)의

"Goodies", 메리제이블라이즈(Mary j Blige)의 "Love At 1st", 퍼기(Fergie)의 "London Bridge", 그웬 스테파니(Gwen Stefani)의 "Wind It Up", 미시엘리엇(Missy Elliot)의 "We Run This"를 분석하였다. 뮤직비디오 "Goodies"에서 시아라는 가슴과 허리 부분이 깊게 파이고 등 부분은 끈으로 연결된 노출이 심한 블랙 바디수트와 스킨니 진 팬츠를 착용하였다. 바디수트의 엉덩이 윗부분에는 ciara 이름이 프린트되어 있다. 악세사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빅 사이즈의 실버 소재 원형이어링과 가는 팔찌를 여러개 레

이어드 하여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갈색 머리에 부분 탈색하였다(그림 17)²⁵⁾. 댄서들과 춤추는 장면에서는 가슴 윗부분까지 오는 짧은 길이에 소매는 손을 다 덮는 티셔츠와 블루 브라탑을 레이어드 하였다. 바지는 신축성 있는 스판소재의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스타일에 바지 안에 입은 비키니의 스트링을 밖으로 보이게 연출하였다(그림 18)²⁵⁾. 메리제이 블라이즈는 뮤직비디오 “Love At 1st”에서 블루 트레이닝 점퍼에 타이트한 트레이닝 숏팬츠에 흰색 배꼽티를 착용하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려 양쪽 팔목에 아대를 착용하였으며 종아리 아랫부분까지 올라오는 길이의 독특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착용하였다(그림 19)²⁶⁾. 퍼프대디와 노래하는 장면에서는 흰색 슬리브리스탑에 레드 가죽 소재의 베스트와 부츠컷 진 팬츠를 착용하고 스니커즈를 변형한 디자인의 앞코가 뾰족한 레드 힐을 신었다(그림 20)²⁶⁾. 또 다른 장면에서는 카키색 슬리브리스 셔츠 디자인의 오버롤즈에 레드 탑을 착용하고 오른쪽 팔뚝에 레드 아대와 이니셜 M이 프린트 된 야구 모자를 착용하였다. 악세사리는 체인 팔찌와 레드 시계, 은으로 된 원형 이어링을 착용하였다(그림 21)²⁶⁾. 퍼기는 뮤직비디오 “London Bridge”에서 핑크색 하이 네크라인 미니 원피스에 길게 늘어지는 체인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느슨하게 핀으로 고정된 형태를 하였다(그림 22)²⁷⁾. 남자 랩퍼들과 노래하는 장면에서는 남자 셔츠같은 빅사이즈의 스트라이프 셔츠에 블랙 베스트를 입고 증절모를 착용하여 매니쉬 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연출하였다(그림 23)²⁷⁾. 그웬스테파니는 뮤직비디오 “Wind It Up”에서 수녀복을 변형한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프에 흰색 후드 미니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등장하였다(그림 24)²⁸⁾. 또 다른 장면에서는 스커트 부분은 페티코트처럼 겹겹이 부풀리고 상의는 별무늬 시스루 소재로 된 흰색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 뱅헤어의 은색 가발을 쓰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였다(그림 25)²⁸⁾. 교복을 입은 댄서들과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블랙 미니 셔츠 원피스에 두꺼운 벨트를 하고 허벅지까지는 타이즈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포니테일로

깔끔하게 연출하였으며 메이크업은 레드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26)²⁸⁾. 미시 엘리엇은 뮤직비디오 “We Run This”에서 관악단의 리더같은 골드색상의 복장으로 댄서들과 등장하였다(그림 27)²⁹⁾. 블루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짧은 숏컷, 블랙 염색의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메이크업은 눈을 강조한 아이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28)²⁹⁾. 댄서들과 군무를 추는 장면에서는 노란 후드티에 데님 소재의 베스트와 팬츠를 착용하고 흰색 야구 모자를 착용하였다. 악세사리는 빅 사이즈 원형이어링과 피어싱을 하고 라디오 모양의 팬던트 목걸이를 길게 늘어뜨렸다(그림 29)²⁹⁾.

랩, 힙합의 뮤직비디오 의상은 화이트, 블랙, 레드 등의 다양한 색상과 데님팬츠, 티셔츠, 트레이닝 점퍼 등 스포티한 아이템을 착용하였으며 악세사리는 야구모자, 운동화, 아대 등의 소품과 은소재, 체인 악세사리와 문신, 피어싱을 주로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층을 많이 내고 부분 탈색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으로 눈을 강조한 스타일이 많았다. 랩, 힙합 장르에서는 트레이닝복, 티셔츠, 데님팬츠 등의 캐주얼 스타일과 코스프레 스타일의 의상을 볼 수 있었으며 샤이닝한 소재와 길이가 짧고 피트되는 실루엣을 보여주며 여성의 관능미를 부각시켰다. 랩, 힙합의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은 <표 4>와 같다.

4) 알앤비

일반적인 알앤비의 패션 스타일은 수트가 기본이 되는 스타일에 바지모양이나 재킷의 모양에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모자, 스카프, 타이등의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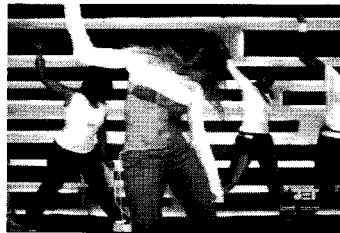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알리샤 키스(Alicia Keys)의 “Unbreakable”, 아산티(Ashanti)의 “Foolish”,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의 “We belong Together”, 모니카(Monica)의 “So Gone”, 제시카심슨(Jessica Simpson)의 “Angel”등 알앤비 여자가수의 뮤직비디오 의상을 분석하였다. 알리샤 키스는 뮤직비디오 “Unbreakable”에서 가슴부분을 레이스로 장식한 툰다운된 옐로우 탑에 골드 레이스 볼레로와 빈티지 진을

〈표 6〉 랩, 힙합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

Title	스타일	색상	소재	아이템	악세서리	헤어메이크업
시아라 "Goodies"	섹시 캐주얼	white, black, blue	스판덱스, 면	바디수트 스키니 진 브라 탑	실버악세사리, 빅사이즈이어링	스트레이트 롱 헤어, 부분탈색
메리제이블라이즈 "Love At 1st"	섹시 캐주얼 스포티	red, blue, black	면, 데님	슬리브리스 티, 데님팬츠 트레이닝 점퍼, 숏 팬츠	문신, 야구모자아대	층진 미디엄 단발, 펄 아이, 메이크업, 아이라인 강조
퍼기 "London Bridge"	섹시	white, pink, black	면	배꼽티, 베스트, 셔츠, 미니원피스	중절모, 체인목걸이, 체인벨트	아이라인 강조, 양갈래머리, 스트레이트 헤어
그웬스테파니 "Wind It Up"	섹시	white, black	면, 망사	미니원피스, 케이프	십자가목걸이, 빅벨트, 선글라스	은색가발, 포니테일, 내추럴 메이크업, 레드 립 강조
미시엘리엇 "We Run This"	스포티	blue, yellow	면, 데님	트레이닝복, 베스트, 후드 티	야구모자피어싱, 빅 사이즈 이어링, 체인목걸이	짧은 숏컷, 블랙염색



〈그림 17〉 시아라,
"Goodies(2005)" 1



〈그림 18〉 시아라,
"Goodies(2005)" 2



〈그림 19〉 메리 제이 블라이즈,
"Love At 1st(2003)" 1



〈그림 20〉 메리 제이 블라이즈,
"Love At 1st(2003)" 2



〈그림 21〉 메리 제이 블라이즈,
"Love At 1st(2003)" 3



〈그림 22〉 퍼기, "London
Bridge(2006)" 1



〈그림 23〉 퍼기,
"London Bridge(200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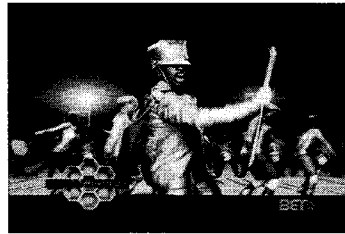
〈그림 24〉 그웬 스테파니,
"Wind It Up(200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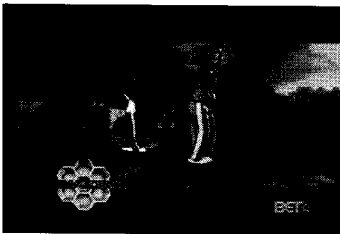
〈그림 25〉 그웬 스테파니,
"Wind It Up(2006)" 2



〈그림 26〉 그웬 스테파니,
"Wind It Up(2006)" 3



〈그림 27〉 미시 엘리엇,
"We Run This(2006)" 1



〈그림 28〉 미시 엘리엇,
"We Run This(2006)" 2



〈그림 29〉 미시 엘리엇,
"We Run This(2006)" 3

착장하고 브라운 롱 부츠를 바지위로 착장하였다. 머리에 새틴 소재의 골드 두건을 매듭이 옆으로 오도록 착용하고 팔에는 골드, 브라운 뱅글을 여러 개 레이어드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어깨 길이의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하고 메이크업은 의상에 맞춰 골드 펄 색상을 기본으로 하였다(그림 30)³⁰⁾. 아산티는 "Foolish"에서 험 라인이 사선으로 처리된 블랙 미니 드레스에 심플한 디자인의 Y자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등장한다. 헤어스타일은 업 스타일로 깔끔하게 하고 메이크업은 레드 입술로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31)³¹⁾. 또 다른 장면에서는 깊게 파인 레드 V 넥 니트에 블랙 오블리크탑을 착장하고 삼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깔끔한 포니테일 스타일을 하였다(그림 32)³¹⁾. 계단에서 내려오는 장면에서는 데님 소재의 슬림한 디자인의 트랜치코트를 착장하고 오버사이즈 선글라스와 일자형의 심플한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이다. 헤어스타일은 포니테일로 깔끔하게 연출하였다(그림 33)³¹⁾. 머라이어 케리는 "We belong Together"에서 홀터넥 보라 실크 드레스를 착용하고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파스텔 톤의

메이크업으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34)³²⁾. 춤추는 장면에서는 블랙 오블리크 드레스를 착장하고 허리부분에 큐빅 브루찌로 포인트를 주었다. 헤어스타일은 금발의 롱 스트레이트를 하였다(그림 35)³²⁾. 또 다른 장면에서는 소매단과 끝단 네크라인에 큐빅으로 장식된 화이트 미니드레스를 착용하였다(그림 36)³²⁾. 뮤직비디오 "So Gone"에서 모니카는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보여주었다. 쉬폰 소재의 기모노 소매 프린트 상의에 화이트 팬츠를 착장하고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헤어스타일은 포니테일로 깔끔하게 연출하였다(그림 37)³³⁾. 또 다른 스타일은 네크라인과 소매단을 가죽으로 덧대고 지퍼장식된 타이트한 브라운 숏자켓에 변형된 스커트를 레이어드 한 듯한 숏팬츠를 착장하고 의상과 같은 톤의 중절모를 착용하였다. 메이크업은 의상에 맞추어 브라운 톤으로 연출하였다(그림 38)³³⁾. 또 다른 장면에서는 블랙 케미של 탑 위에 스트라이프 니트 탑과 숏팬츠를 착장하여 섹시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그림 39)³³⁾. 제시카심슨은 뮤직비디오 "Angel"에서 화이트 쉬폰 소재 하이 웨이스트 드

〈표 9〉 알앤비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

Title	스타일	색상	소재	아이템	악세서리	헤어,메이크업
알리샤키스 "Unbreakable"	에스닉	gold	레이스 새틴	블레로, 빈티지진	두건, 뱅글	미디엄단발,골드필 메이크업
아산티 "Foolish"	섹시	black red	니트 저지	홀터넥 탑, v넥 니트	선글라스, 심플한 디자인의 목걸이, 귀걸이	포니테일, 업스타일, 레드립으로 포인트
머라이어케리 "We Belong Together"	페미닌	white purple	실크	홀터넥 드레스	큐빅 브룩찌	롱웨이브, 금발머리, 파스텔계열의 은은한 메이크업
모니카 "So Gone"	섹시	brownblack	쉬폰 니트	판초, 케미슬탑,숏팬츠	중절모,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스트레이트 헤어, 브라운톤의 메이크업
제시카심슨 "Angels"	페미닌	white	쉬폰 레이스	하이 웨이스트 드레스	나비 팬던트 목걸이	롱웨이브, 금발, 내추럴 메이크업



〈그림 30〉 알리샤 키스,
"Unbreakable(2005)"



〈그림 31〉 아산티,
"Foolish(2002)" 1



〈그림 32〉 아산티,
"Foolish(200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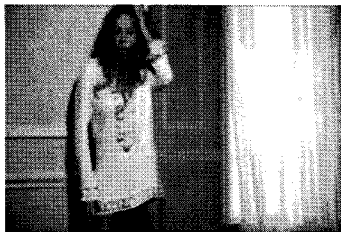
〈그림 33〉 아산티,
"Foolish(2002)" 3



〈그림 34〉 머라이어 케리,
"We Belong Together(2005)" 1



〈그림 35〉 머라이어 케리,
"We Belong Together(200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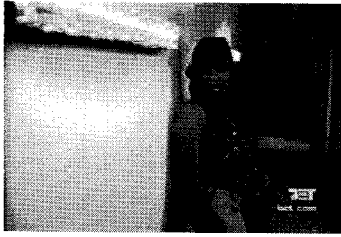
〈그림 36〉 머라이어 케리,
"We Belong Together(2005)" 3



〈그림 37〉 모니카,
"So Gone(2003)" 1



〈그림 38〉 모니카,
"So Gone(2003)" 2



〈그림 39〉 모니카,
"So Gone(2003)" 3



〈그림 40〉 제시카 심슨,
"Angels(2005)"

레스를 착장하여 청순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드레스는 가슴부분이 레이스로 장식되고 헴라인이 불규칙하게 디자인 되었다. 악세사리는 나비 팬던트가 달린 Y자 형태의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금발의 롱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연출하였으며 메이크업은 색조가 거의 안 들어간 내추럴한 스타일로 하였다(그림 40)⁴⁰⁾.

알앤비의 뮤직비디오 의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색상은 화이트, 골드, 보라 등 부드러운 색상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소재는 드레이프(Drape)지는 쉬폰, 실크와 레이스를 주로 사용하여 페미닌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 형태가 많았으며 메이크업은 색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내추럴하게 표현하였다. 다른 장르에 비하여 노출 정도가 크지 않았다.

알앤비 장르에서는 스토리 위주의 연출이 많아 스토리 전개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맞는 다양한 의상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여자 주인공의 경우 쉬폰, 실크 소재의 드레스를 주로 착용하여 페미닌한 스타일을 연출하여 여성스러운 면을 부각시켰으며 다른 장르에 비하여 많은 노출을 하지 않았다. 알앤비의 뮤직비디오 의상 분석은 <표 5>와 같다.

V. 결론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의상은 가수의 개성표현은 물론, 유행을 창조하고 리드하며 감각적인 영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가수의 개성을 표현하는 의상이 그와 동일시되려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

에게 까지 모방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유행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 장르별로 선정된 여자가수 뮤직비디오를 그들의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중음악 장르별 뮤직비디오 의상에 표현된 관능미를 세부적 디자인 요소로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미학적 요소를 표현하는 디자인 기법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락 장르에서는 여성의 관능미를 가죽, 데님 등의 소재와 보이쉬하고 중성적인 스타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더욱더 여성스러운 면을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댄스 뮤직에서는 섹시룩이나 란제리룩 등의 스타일로 다른 장르에 비하여 노출 부위가 컸으며 레깅스, 레오타드, 바디수트 등의 밀착된 형태로 팜프파탈 스타일과 쉬폰, 실크 등의 소재를 사용한 드레이퍼리 형태의 의상으로 페미닌한 모습의 양면적인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랩, 힙합 장르에서는 트레이닝복, 티셔츠, 데님팬츠 등의 캐주얼 스타일과 코스프레 스타일의 의상을 볼 수 있었으며 샤이니한 소재와 길이가 짧고 피트되는 실루엣을 보여주며 여성의 관능미를 부각시켰다. 넷째, 알앤비 장르에서는 스토리 위주의 연출이 많아 스토리 전개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맞는 다양한 의상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여자 주인공의 경우 쉬폰, 실크 소재의 드레스를 주로 착용하여 페미닌한 스타일을 연출하여 여성스러운 면을 부각시켰으며 다른 장르에 비하여 많은 노출을 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대중음악 장르별로 뮤직비디오

의상에 표현되어지는 패션 스타일이 다르며, 특히 여성의 관능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링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대중음악 장르의 음악적 특성들이 패션 스타일과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관능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음악적 특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스포츠투데이, 2003. 5. 7, 열린 가슴 클리비지 룩...자신감+섹시미 과시.
- 2) 김훈순 (2001). 한국 뮤직비디오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성 정치학. *한국방송학보*, 통권, 15(3), pp. 87-129.
- 3) 권기영 (2004). 한국과 미국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신체표현과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1(5), pp. 1231-1242.
- 4) 정이주 (2004).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연구-드라마 형식 뮤직 비디오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도희 (2002).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최민성 (2002). 뮤직비디오 이미지 연구의 출발. *한국언어문화*, 22(12), pp. 365-382.
- 7) 김영식, 권중문, 지현호 (2000). *국내 뮤직비디오의 영상장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연구.
- 8) 서정옥 (2000). 뮤직비디오의 영상특성에 관한 연구. *산학연구*, 20(2), pp. 277-292.
- 9) 고지형 (1996). *팝 뮤직비디오 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류경민 (2004). *뮤직비디오 의상에 관한 연구-미국 MTV와 국내 M.net의 시상식 자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정하나, 최현숙 (2005). 사회비판적 뮤직비디오 의상에 관한 연구. *패션디자인학회*, 5(1), pp. 39-52.
- 12) 로이셔커 (1999). *대중음악사전*. 서울: 한나래.
- 13)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1996). *Su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V&M Museum, p. 15.
- 14) 조혜연 (2003). *빌보드 앨범차트 분석을 통한 미국 대중음악의 특징 및 선호도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Avril Larvine (2002). *Complicated*. 소니뮤직.
- 16) Ashlee Simpson (2004). *Just Like a PillShadow*. 유니버설뮤직.
- 17) Evanescence (2006). *Call Me When You're Sober*. 소니뮤직.
- 18) Kelly Clarkson (2005). *Walk Away*. 소니뮤직.
- 19) Pink (2002). *Just Like a Pill*. 소니뮤직.
- 20) Beyonce (2003). *Crazy in Love*. 소니뮤직.
- 21) Britney Spears (2003). *Toxic*. 소니뮤직.
- 22) Jenifer Lopez (2003). *Play*. 소니뮤직.
- 23) Madonna (2005). *Sorry*. 워너뮤직.
- 24) Christina Aguilera, Mya, Lil Kim & Pink (2001). *Lady Marmalade*. 유니버설뮤직.
- 25) Ciara (2005). *Goodies*. 소니뮤직.
- 26) Mary J Blige (2003). *Love At 1st*. 유니버설뮤직.
- 27) Fergie (2006). *London Bridge*. 유니버설뮤직.
- 28) Gwen Stefani (2006). *Wind It Up*. 유니버설뮤직.
- 29) Missy Eliot (2006). *We Run This*. 워너뮤직.
- 30) Alicia Keys (2005). *Unbreakable*. 소니뮤직.
- 31) Ashanti (2002). *Ashanti*. 유니버설뮤직.
- 32) Mariah Carey (2005). *We Belong Together*. 유니버설뮤직.
- 33) Monica (2003). *U should've know better*. 소니뮤직.
- 34) Jessica Simpson (2005). *Angels*. 소니뮤직.
- 35) David Kleiler & Robert Moses (1997). *Making Music Video*. Randomhouse, p. 48.
- 36) E. Ann Kaplan. (1987). *Rocking Around the Clock-Music Televisi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Culture*.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 pp. 49-88.
- 37) 자료검색일 2007.10.15, 자료출처 www. bugs.co.kr